

# 사유와 욕망의 표출, 여행

진주형\*

\*청운대학교 관광경영학과  
amazingclub@naver.com

## Release of thinking and desire, travel

Joo-Hyung Chun\*

\*Dept. of Tourism Management, Chungwoon University

### 요 약

움직이는 존재로 인간은 이동과 늘 관련된다. 그 이유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결핍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동시에 결핍에서부터 벗어나려는 ‘탈존’을 꿈꾼다.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인간은 실존적 자유를 얻으려는 영혼의 자유 혹은 정신의 자유를 가진 존재다. 탈존을 꿈꾸는 우리는 한 곳에 머무르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낯선 곳에 이동함으로써 머무르는 곳에서 갖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채우려 한다. 그 채우려는 것의 핵심이 새로운 사유의 시작과 욕망의 분출이다. 여행자는 낯선 곳에 가면 기존에 알던 것과 새로운 곳에서 아는 것에 의해서 비교가 가능해지고 비교의 차이에 의해서 새로운 앎이 시작된다. 앎이 시작되면 새로운 사유가 발현된다. 새로운 사유의 시작 때문에 여행자가 가진 가치관과 인생관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낯선 곳에 가서 느끼는 또 다른 요인은 익숙하지 못함에서 오는 어리둥절함과 불안감이다. 이것은 일상과 다른 엇갈림과 낯섦으로부터 온다. 어리둥절함과 불안감은 여행자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본능을 발현시키는 기회를 준다. 일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본능의 발현은 일상에서 억압되었던 자신의 본능을 돌아볼 기회를 준다.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계기가 된다. 여행자는 새로운 사유의 시작과 억압되었던 본능의 발현에서 찾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 1. 서론

인간은 행위 하는 존재 혹은 움직이는 존재(動物)다.[1] 움직이는 존재인 인간은 이동과 늘 관련된다. 인간이 움직이는 존재인 것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결핍의 존재(Mangelwesen)’이기 때문이다. 이 결핍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결핍된 것이 있기에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결핍을 채우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치는 이 몸부림 혹은 발버둥을 ‘실존(Existenz)’이라고 한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려는 자다. 이와 같은 실존이 곧 ‘탈존(脫存, Ex-sistenz)’이다. 우리는 실존적 자유를 얻으려 한다.[2] 이 자유는 영혼의 자유 혹은 정신의 자유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탈존하려는 자유를 가진다. 한 곳에 머무르기만을 원하지 않는 우리는 자신이 머문 곳을 떠나 낯선 곳에 이동함으로써 그곳에서 무엇인가 채우려 한다. 일상에서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낯선 곳

으로 가는 행위가 바로 여행이다. 여행자는 일상의 생활권에서 얻지 못하는 그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낯선 지역으로 가는 자다. 그 낯선 곳에서 채우려는 것은 일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현실에서의 일탈을 물론이고 새로운 경험, 아름다운 풍경, 새로운 만남 등이다. 내일을 위한 준비이며 자신이 가진 가치관의 변화의 변화이다. 이 같은 것을 원하는 여행자에게 여행이 주는 근본적인 것은 새로운 사유의 시작과 억압된 욕망의 분출이다. 이런 것이 여행에서 가능할까? 이 연구는 새로운 사유의 시작과 억압된 욕망의 분출이 여행에서 가능할 것인가를 탐색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된다.

### 2. 사유의 시작

앎과 사유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앎을 얻기 위해 애쓴다. 그 증거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지각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유용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감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좋아한다. 무엇보다도 눈을 통한 감각이 제일 그렇다. 행동을 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행동을 할 생각이 없을 때조차 보는 것을 다른 모든 감각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감각이 사물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많은 차이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3]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의 앎은 비교에 의해 차이를 느끼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변화는 기존에 가진 자신의 견해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가능하다. 아틀러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일 때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외부 세계의 반사체, 즉 주관적 상(像)으로 받아들인다.[4] 우리의 견해와 충돌하는 사실에 부딪힐 때만 직접 경험을 통해 견해를 일부 수정하고 인과 법칙을 수용하려는 것이다. 삶에 대처하는 견해를 쉽게 바꾸지 않지만 태도나 자신의 가치관을 바꿀만한 큰 변화가 있을 때 바꾸어진다.

여행자는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수많은 인식에 의해서 차이를 느끼고 그 차이는 곧, 새로운 앎으로 연결된다. 여행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풍습, 문화, 생활상 혹은 언어나 피부색, 거리 풍경이나 사람들의 표정 등을 만난다. 이때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일상과 다른 목적지에 있기 때문이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새로운 사유가 시작되는 것이다. 새로운 앎이 있으면 정체되어 있던 기존의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서 자신의 현재를 극복하려는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다.

### 3. 욕망의 분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억압된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 억압은 모든 힘의 근원인 자연으로부터 발생된 것이다.[5] 또 인간은 억압의 역사라고 할 만큼 개인의 욕구 본능을 누르고 살아왔다. 본능이 억제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문명을 이룩하여 왔다.[6] 따라서 문명은 본능의 억압에서 비롯된다. 인간에게 억압은 고통스러운 사고·관념을 가져온다. 한 순간도 없애지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인간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억압은 인간의 삶과 행동양식 전반에 충동, 감정, 욕구나 욕망에 대하여 힘과 압력을 통해 작용하는 의식적·무의식적 지배양식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늘 작용한다.

규칙적이거나 일상적인 것에서 벗어나 주변으로부터 상징과 의미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작용하면 우리는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다. 좁게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이때 인간 내부에는 좁게 국한되었던 모든 것이 외부세계의 전 범위에 걸쳐 불특정한 자극의 성질을 띠게 된다. 그것은 어떤 아름답다거나 눈에 띄는

것으로서 하나의 비자의적인, 즉 본능잔여에 의해 조종되는 것으로 주의를 끌고,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중립적 관심을 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부정합이 나타난다. 인간의 사고활동은 언제나 외적 반응에 대한 내적인 단계로 파악될 수 있지만 심미적(審美的)인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저 즐기고 재밌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심미적 행동은 비행동적이고 비사회적이며 어떤 의미를 띠고 있지 않다. 어떤 사회형태를 산출하거나 제도를 일깨워줄 수 없다. 비상성(非常性)으로 충만되어 있는 세계를 열고, 자신의 가장 깊은 본질적 성격, 즉 본능의 질곡으로부터 해방과 부담 면제를 외부에서 체험하게 된다.[7] 이것이 본능의 분출이다. 본능의 분출을 자신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아름다운 상황이다. 이때가 되면 자신이 가진 생물학적, 사회학적, 미학적 의식 체계가 일체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8]

여행자가 낯선 지역에 도착하면 자신의 예상에서 빗나간 것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엇갈림이나 낯섦이 발생한다. 이 엇갈림과 낯섦이 여행자를 이끌게 하는 것이다. 낯선 곳에서 엇갈림과 낯섦이 없다면 여행자는 먼 곳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엇갈림과 낯섦이 여행자의 욕망을 자연스럽게 분출시키게 된다. 또 낯선 곳에서 새로운 자기표현과 발견이 이루어질 때 욕망은 자연스럽게 분출된다. 이때 여행자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낀다.

### 4. 결론

움직이는 존재인 인간은 이동과 늘 관련된다. 인간이 움직이는 존재인 것은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것, 갖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결핍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핍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인간은 이 결핍을 채우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치는 이 몸부림 혹은 발버둥을 ‘실존(Existenz)’이라고 한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초월하려는 인간은 이와 같은 실존에서 벗어나는 ‘탈존(Ex-sistenz)’을 꿈꾼다. 우리는 실존적 자유를 얻으려는 영혼의 자유 혹은 정신의 자유를 가진 존재다.

일상에서 우리는 탈존하려는 자유를 가진 존재로 한 곳에 머무르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낯선 곳에 이동함으로써 그곳에서 무엇인가 채우려 한다. 여행은 일상에서 가지지 못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낯선 곳으로 가는 행위다. 여행자는 낯선 지역에서 일상에서 갖지 못한 것을 채우려는 자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채우려는 것은 새로운 사유의 시작이다. 또 일상에서 억압되었던 욕망의 분출이다.

낮선 곳에 가면 누구나 새로운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에 의해 차이를 알게 되고 차이는 곳 앞이다. 앞이 시작되면 그것은 새로운 사유를 시작한다. 여행이 끝난 후 기존에 가진 가치관과 인생관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낮선 곳에 가서 느끼는 또 다른 여행자의 모습은 어리둥절함과 불안감이다. 이것은 여행자에게 일상과 다른 차이에서 오는 엇갈림과 낯섦에 기인한다. 어리둥절함과 불안감은 여행자가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본능을 발현시키는 기회가 된다. 본능의 발현은 일상에서 억압되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준다. 따라서 여행을 가게 되면 자신은 누군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와 같은 근본적 질문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기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는다. 인간은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자기 인식의 측면만이 아니라 육체에 근거한 본능적 욕망과 무의식적 동기를 이해하는 순간 폭 넓은 자기 인식의 성찰을 기회를 갖는다. 또 자기 인식으로부터 삶에 실천적으로 유의미하며 구체적 통찰을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인간과 삶을 이해하는 연결고리이며 인식의 틀이다. 이때 우리는 각자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깊이 있는 인간 이해의 학문과 정신 이론을 발굴하고 활성화한다. 여행이 끝난 후 누구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허언이 아니다.

#### 참고문헌

- [1] Arnold Gehlen, *Urmensch: und Spätkultur; Philosophische Ergebnisse und Aussagen*, Athenäum Verlag, Frankfurt am Main, Bonn, 1964. 박만준, 겔렌의 행위 이론: 문화의 기원을 찾아가는 물음, 철학논총 15, 1998, 137-154.
- [2] 성시정, UFO학: 인류학과의 조우, 살림, 2003, 55-56.
- [3] 아리스토텔레스, 한석환 옮김, 형이상학, 지만지, 2011, 29.
- [4] 알프레드 아들러, 아들러 삶의 의미, 을유문화사, 2019, 17-28.
- [5] Weil, Simone, 곽선숙 역, 억압과 자유, 일월서각, 1980, p.99.
- [6] 강옥선, 블레이크와 프로이트 - 성논쟁과 억압의 원리를 중심으로,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10), 1999, p.88.
- [7] 아놀드 겔렌, 이을상 옮김, 인간학적 탐구, 이문출판사, 1998, 192-202.
- [8] 정기성·김민자, 몸·복식에서 억압과 욕망의 패러다임 개발, 복식, 63(6), 2013, 97-112.